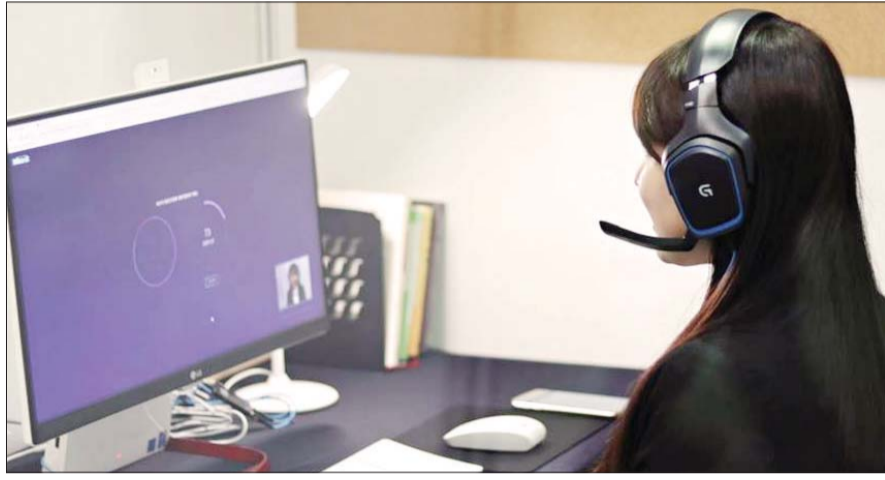


행동분석에 감정인식까지... AI 면접 솔루션 경쟁 치열

제네시스랩 뷰인터 HR
 통합 감정인식 기술 멀티 모달 개발
블루바이저 하이버프 인터뷰
 인재에 맞춰 질문 자유자재 설정
에듀스 통합 플랫폼 레이나 솔루션
 클라우드로 오류없이 영상 송수신



아직은 생소하지만 한 인공지능(AI) 면접이 고용 트렌드로 자리잡다보니 취업준비생들은 AI 면접까지 준비해야 하는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마이다스아이티의 AI 면접 시스템을 통해 AI 면접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 /마이다스아이티

인공지능(AI) 채용이 대기업, 공공 기관에 널리 확산되면서 AI 면접 솔루션 시장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그간 AI 채용 솔루션 시장에서는 초기에는 선발주자인 마이다스아이티 계열의 마이다스인의 AI 채용 솔루션 '인 에이'가 시장을 거의 독점했다. 하지만 AI 채용 시장 확대되면서 제네시스랩·블루바이저·에듀스 등이 AI 채용 솔루션을 출시해 고객 확대에 나서고 있다. 또 미국의 대표 AI 면접 솔루션도 국내 영업을 본격화해 외산 제품도 국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21일 시장 선두업체인 마이다스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사의 AI 역량 검사를 도입한 기업은 450개사에 달해 1년 만에 5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진행된 취업생 대상 '2021년 채용 트렌드 및 현황' 설문조사에서는 취

준생의 82%가 'AI 역량 검사·면접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그만큼 AI 채용은 이미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AI 채용 솔루션 개발도 더욱 활기를 띠 전망이다.

먼저 제네시스랩은 지난 2017년 설립 후 빠르게 AI 영상면접 솔루션인 '뷰인터HR'을 출시했으며, 40여곳에 이 솔루션을 제공했다. 이 회사는 표정·목소리·제스처 등을 통합 분석하는 '멀티모달' 감정 인식 기술을 자체 개발해 AI 기반 '뷰인터' 영상면접 시스템에 적용했다. 면접 영상을 찍으면 이를 AI가

분석해 응시자의 사회화 기술과 행동분석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뷰인터HR은 얼굴 표정, 태도, 시선 등을 분석하는 비언어적 행동 분석과 말로 하는 답변 내용을 평가하는 내용 분석 2가지로 진행된다. AI 영상면접을 활용할 경우, 2000명 기준 2400시간이나 단축시키고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어, 지금까지 LG전자 등 LG그룹, SK, CJ 등 대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제품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블루바이저는 지난해 8월 인공지능(AI) 면접 솔루션 '하이퍼프 인터뷰'를 출시

하고 올해 본격 영업에 나서고 있다. '하이퍼프 인터뷰'는 기업 버전과 개인 버전으로 나뉘어 있다. 우선 기업 버전은 직무 역량과 원하는 인재에 맞춰 질문을 자유자재로 설정하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며, 면접자들에게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공정성을 강화했다.

블루바이저는 장애인 비대면 면접에 잘 적용해 채용 기회가 확대되도록, 부산광역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 '하이퍼프 인터뷰'를 기증하기도 했다.

블루바이저 관계자는 "AI 면접 솔루션은 코로나 시국에 맞춰 대면 면접을 비대면으로 잘 전환할 수 있도록 AI를 활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라며 "기업에는 비용 절감 및 맞춤형 인재를 선발하는 기회를 높여주고, 취업준비생에게는 더 많은 면접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에듀스도 지난해 말 AI 기반의 비대면 채용 통합 플랫폼 '레이나' 솔루션을 출시했다.

레이나를 통해 기업에 AI 자기소개서 평가 도구, AI 면접 도구, AI 영어면접, 비대면면접 솔루션, 부정행위 방지 온라인 시험 플랫폼 등을 제공한다. 이

중 비대면 면접 솔루션 '인뷰'는 강력한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으로 많은 양의 영상 데이터를 오류 없이 송수신한다. 모든 면접 대상자도 전용 관리자 페이지에서 관리할 수 있다. 또 모든 화면 공유 기능을 사용한 PT 면접, 면접별 전용 면접평가표를 생성해 결과를 통합할 수 있다. 응시자가 면접에서 답변한 내용을 AI가 자연어처리(NLP) 기술로 분석하며, 영어·일어·중국어·독일어 등 주요 국가의 언어로도 화상 면접이 가능하다.

일본 IT 기업 바쿠추는 아마존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국의 대표 AI 디지털 면접 플랫폼인 '하이어뷰'를 지난해 개최된 '2020 AI 엑스포' 행사에 전시하는 등 국내 영입에 나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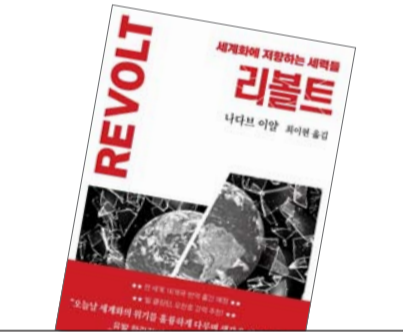
이 솔루션은 화상으로 진행된 응시자의 인터뷰 내용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 알고리즘이 주요 키워드를 분석해 준다. 기업이 준비한 질문에 후보자가 답변을 녹화하는 '온디맨트 면접', 라이브 면접, 프로그래밍 능력 테스트, 음성·텍스트·표정 등에서 2만 5000개의 조합 특성을 검출하는 AI 평가, 게임베이스 평가 등을 제공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metroseoul.co.kr

새로 나온 책

공룡기업이 놓은 덫에 걸린 빈곤국

세계화는 수많은 사람들을 끄떡없이 난에서 벗어나게 했고 문맹률을 낮춰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받는다. 그러나 세계화로 인해 사람들은 노동력을 착취당하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 기업들은 노동력과 에너지를 싼값에 사용할 수 있고 원자재를 이용할 수 있는 전 세계 여러 지역을 착취 허브로 활용했다. 아프리카, 아시아와 같이 외화와 일자리가 절실한 빈곤국들은 공룡 기업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리볼트
 나딘 이얼 지음/최이현 옮김/까치

오염물질은 생산지에 그대로 남아 사람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 시장주의와 끊임없는 생산 활동은 지구를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망가뜨리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세계화의 추악한 이면을 다룬 책.

496쪽. 2만1000원. /김현정 기자 hjk1@

아산 정주영 레거시

김화진 지음/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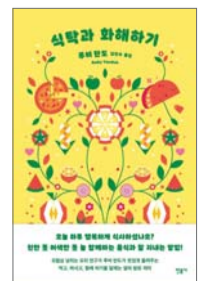


서울법대 김화진 교수가 한국 경제의 신화인 고 아산 정주영 회장과 그의 유산 현대를 재조명한다. 이 책은 '아산'의 전기도, '현대'의 역사책도 아니다. 저자 특유의 시각에서 현대와 그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다. 저자는 아산의 생애와 업적도 조명하지만 아산이 일군 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 책은 아산의 유산인 현대와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글로벌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저자의 관점이 반영된 새로운 '기업 읽기'다.

308쪽. 2만9000원

식탁과 화해하기

루비 탄도 지음/김민수 옮김/민음사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은 폐허가 됐다. 웰빙 문화는 건강 염려증을 부추겨 각종 건강식품을 팔아치우고 있다. 미식의 참된 즐거움을 가로막고 우리 입맛에 서열을 매기는 속물적 엘리트주의는 또 어떠한가. 광대한 식탁을 가로지르는 불평 등부터 인종 차별, 수치심, 죄책감에 이르기까지. 인간에게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식사)과 장소(식탁)는 전쟁터로 변한 지 오래다. 책은 가장 원초적인 즐거움인 '음식 먹는 일'의 행복을 느끼라고 조언한다.

392쪽. 1만6500원

잘 나가는 '데이팅앱'... 송금·만남 주의해야

비대면 수혜로 이용자·돈 몰려
 사칭·사기 등 범죄 악용 가능성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비대면 만남으로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데이팅 앱도 수혜를 받았다. 온라인상에서 타인과 만나 대화할 수 있는 데이팅 앱에 이용자와 돈이 몰리고 있는 것.

21일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앱애니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팅 앱에 대한 전 세계 소비자 지출은 전년 대비 15% 성장한 30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이중 한국 소비자는 830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에서는 '위피'가 데이팅 앱 지출 기준 1위를 차지했다. 위피는 데이팅 앱으로는 유일하게 비게임 앱 상위 10위 안에 안착하기도 했다. 이어 '클럽'이 2위, '심쿵'이 3위, '정오의 데이트'가 4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틴더'가 소비자 지출 기준 1위에 올랐다. 토종 데이팅 앱의 강세가 강한 한국과 중국에서도 인기가 높다.

재방문율이 앱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지만 데이팅 앱은 매칭이 이뤄지면 앱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

비자 지출이 앱에 대한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인식된다.

전 세계 평균 월간 활성 사용자(MAU) 기준으로도 틴더는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바두'와 '뽀뽀'가 각각 2위와 3위에 자리했다. 최근 IPO로 화제가 된 뽀뽀는 틴더의 공동 창업자가 2014년 독립해 만든 데이팅 앱으로, 여성이 먼저 말을 걸어야 매칭이 성사되는 것이 차별점이다.

한국에서도 틴더의 MAU가 가장 많았다. 클럽과 정오의 데이트, 위피가 그 뒤를 이었다.

데이팅 앱의 인기가 증가한 데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경우 데이팅 앱은 밸런타인데이를 앞두고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다가 밸런타인데이가 지나면 사용량이 소폭 감소하는 패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일정 시기가 지난 이후에도 이용자들이 계속 데이팅 앱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앱애니의 시니어마켓 인사이트 매니저 레시는 "소비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접 만나는 데이팅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상호작용하기 위해 데이팅 앱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데이팅 앱 산업이

거리 두기가 뉴노멀이 된 사회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성공적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앞으로 데이팅 앱에 대한 사용과 소비자 지출은 견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다양한 데이팅 앱이 차별점을 앞세워 시장에 뛰어드는 만큼 경쟁도 뜨겁다. 데이팅 앱에 대한 미래 가능성 탓에 거액에 인수되는 경우도 있다.

세계 최대 데이팅 앱 틴더의 운영사인 미국 매치그룹은 최근 영상 메신저 앱 '아자르'를 개발한 국내 스타트업 하이퍼커넥트 지분 100%를 총 17억 2500만달러(약 1조90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틴더 외에도 '페이스', '힌지', '매치', 'POF' 등의 데이팅 앱을 서비스하는 매치그룹은 이번 인수를 통해 데이팅 앱에서의 영상 기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데이팅 앱에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직업을 사칭하거나 사기, 성매매, 동영상 유박 협박 등의 범죄 수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등장하는 만큼 송금과 오프라인 만남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과기부,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 추진

한달간 125개 창업탐색팀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학, 출연(연) 등 실험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공

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사업' 이하 '한국형 아이코어'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일부터 한 달간 7개 권역

실험실창업혁신단과 시장탐색교육기관, 125개 창업탐색팀을 선정 공고한다.

올해는 향후 5년 간 창업탐색교육 및 창업보육을 전달할 7개 실험실창업혁신단과 국내 1곳과 해외 1곳의 시장탐색교육기관을 신규 선정한다.

/채윤정 AI전문기자